

# 박물관사람들

2021년 여름 · 73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칠보화접뒤꽂이,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발행일 2021년 6월 1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 · 계운애 · 길문숙 · 문정원 · 서유미 · 정은정 진행 김유경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21년 여름 · 73호 Contents

기획 / 꾸밈	눈길이 머무는 거기	4
	美, 人	8
	그 남자들이 꾸미는 법	12
문화칼럼	관음보살님, 우리 얘기도 들어주세요!	16
답사기	편안한 동행	20
	낯설고 매력적인 나라, 이란	24
회원마당	물의 노래	28
박물관 소식	박물관사람들 원고 모집	30
	2021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32
숨은전시	대면하는 일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기부회원 명단	34

눈길  
이  
머무  
는  
거  
기

경사스러운 날 음악이 빠질 수 없지요. 경쾌한 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봉황을 수놓은 대례복과 대수머리로 화려하게 꾸민 여인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상궁 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 곧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림새가 어찌나 화려한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예요. 그 화려함이 머리 꾸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듯 온갖 종류의 머리꾸미개가 대수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특히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있어 마치 나비가 파르르 날갯짓하며 활짝 핀 꽃으로 날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머리꾸미개는 더없이 아름다워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함은 아름다움을 넘어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 되어 양옆으로 늘어선 문무백관들이 머리를 숙이게 하죠. 물론 머리에 꽂은 화려한 꾸미개의 무게만큼 누리는 것도 많았겠지만 참고 견뎌냈어야 할 무게도 컸겠죠. 머리꾸미개를 보며 그저 작고 예쁜 장신구라는 생각에 그쳤는데 각각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그럼 조선 여인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몄던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순종 근현례식의 영친왕비, 국립고궁박물관

가르마 위에 얹혀 있는 작고 예쁜 머리꾸미개를 본 적 있나요? 영·정조의 가채금지령 이후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는 엷은머리 대신 쪽머리를 하고 예장禮裝할 때는 가채 대신 족두리나 화관을 쓰도록 했어요. 이때 가르마 위에 얹어 치장하거나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첩지라는 머리꾸미개를 사용했어요.

첩지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여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모양이나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여 궁중에서는 쉽게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평상시 항상 첩지를 착용했지요. 반면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궁중의 연회에 참석하거나 예장을 갖추는 때만 착용했어요.

황후는 도금한 용龍첩지를, 비와 빈은 도금한 봉鳳첩지를, 내외명부는 지체에 따라 도금·은·놋쇠로 만든 개구리첩지를 썼지요. 무소의 뿔로 만든 흑각첩지는 상중喪中에 사용했는데 탈상 후 곧 소각하여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사용 계층이 궁중과 사대부가의 여인들로 한정되었고 장식 문양도 왕실을 상징하거나 왕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몇 가지만을 사용하는 등 좀 특이한 조선시대의 머리꾸미개래요. 그런데 용과 봉황이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첩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영친왕비 봉황 장식 옥비녀, 국립고궁박물관

엷은머리에 소요되는 가채의 값이 너무 고가였고, 가채 장식을 위한 사치 또한 날로 심해지자 영조는 가채금지령을 내렸지만 바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어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이 그리 쉬이 사라지겠어요? 순조 때에 이르러서야 엷은머리 대신 쪽머리가 일반화되었어요. 쪽머리는 머리를 땀이 뒤통수에 들어올려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엷은머리의 가채에 치중했던 사치가 비녀로 옮겨지면서 그 종류와 장식이 엄청 다양했어요. 신분의 차별이 심했던 당시 상류층 부녀자들은 금은주옥으로 장식한 비녀를 꽂은 반면 서민층 부녀자들은 나무나 뿔, 뼈로 만든 비녀를 사용했어요. 지금이나 예나 사정은 비슷하군요.

왕비의 어머머리에는 용을 조각한 용잠을, 사대부녀의 쪽머리에는 매화와 대나무를 새긴 매죽잠을, 일반 부녀자들은 장식이 없는 민잠을 꼰었어요. 평소에는 작고 짧은 비녀를 사용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크고 긴 비녀를 꼰었어요. 여름에는 옥으로 만든 옥비녀를 꼰고 겨울에는 금 도금한 금비녀를 꼰는 등 계절에 따라 꼰는 비녀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용잠과 봉잠은 왕실의 전유물이었으나 민가에서도 혼례날 하루만은 원삼이나 활옷을 입고 용잠을 꼰는 것을 허용했어요.

금으로 도금한 비녀 머리에 떨철을 달고 그 끝에 꽃과 나비를 얹혀 화려하게 장식한 영락비녀는 움직일 때마다 떨철이 아름답게 떨려 생동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비녀는 가체금지령으로 인해 유행하게 된 비녀가 다시



용잠,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은칠보봉황영락비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사치스러워지면서 생겨났는데 상류층에서 예장할 때나 경사가 있을 때 많이 꼰았죠.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꾸미개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떨잠을 꼽겠어요. 작은 움직임에도 파르르 떠는 나비와 새 장식의 떨림은 보는 이의 가슴까지 떨리게 해요. 그러니 화사하게 차려 입고 떨잠을 꼰은 여인네의 화려한 모습은 얼마나 고풍적이겠어요.

떨잠은 왕비를 비롯한 상류층 부녀자가 의식이 있을 때 예복을 입고 어머머리나 큰머리를 할 때 꼰았던 것으로 첩지처럼 서민층의 여성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나비 모양 떨잠 한 개, 둥근 모양 떨잠 두 개가 한 벌로, 나비 모양은 머리 앞 중심에 꼰고 둥근 모양은 머리 양옆에 대칭으로 꼰았죠. 머리 앞에 꼰는 것을 선봉잠先鳳簪, 좌우에 꼰는 것을 떨잠이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순정효황후의 선봉잠은 봉황 모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옥이나 금속으로 만든 나비 모양이 많았대요. 장식에 쓰인 나비 문양은 부부애와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은·옥 등으로 둥근 모양, 나비 모양, 꽃 모양의 판을 만들어 중앙에 산호·진주·비취를 상감하고 은사銀絲로 만든 용수철 끝에 나비·새·벌 등을 달아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떨림을 만들어내죠. 갖가지 귀한 보석으로 장식하고 나비와 새의 날갯짓으로 생동감까지 불어넣었으니 만인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겠죠?

한 울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갈하게 빗어 쪽을 찢은 여인의 앞모습이 단아하다면 뒤꽂이로 한껏 멋을 낸 뒷모습은 반전이죠. 아름다운 뒷모습은 긴 여운을 남겨요. 뒤꽂이는 쪽의 위·아래에 꼰아 비녀와 함께 쪽머리를 장식하던 것으로, 장식만을 위한 것과 실용성을 겸한 것이 있어요. 장식만을 위한 뒤꽂이로는 국화와 매화를



떨잠,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좌우 대칭으로 달고 그 위에 나비가 있는 화접뒤꽂이와 연꽃 봉오리를 장식한 연봉뒤꽂이가 대표적이예요. 실용성을 겸한 뒤꽂이로는 처음에는 가르마를 타기도 하고 빗의 때를 제거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다 장식을 더해 쪽머리의 꾸미개로 오르게 된 빗치개뒤꽂이와 귀지를 파내던 귀이개뒤꽂이가 있어요. 그 이력이 참 이채롭네요. 필요할 때마다 쓱 뽑아 쓰고는 다시 머리에 꼰아 멋을 부릴 수 있으니 참 편리했겠죠?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여성의 심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부각되던 조선 여인들의 머리꾸미개가 의외로 화려하고 다양해요. 보는 순간 흑하고 빠져들 정도로 아름다운 머리꾸미개를 보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맘껏 상상의 나라를 떠 볼까요? 조선시대로 휘리릭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머리를 하고 어떤 머리꾸미개를 하고 싶어요?

상상은 나름대로이겠지만 상상인데 뭐들 못하겠어요? 🐼



칠보화접뒤꽂이, 칠보귀이개뒤꽂이,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계운애 회원

# 美, 人

저는 옹주 화협和協(1733-1752)입니다. 2015년 남양주에서 제 묘가 발견된 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임금 영조의 일곱 번째 딸이고 세자 사도의 두 살 위 친누이입니다.

제 나이 겨우 스물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묘지문 墓誌文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 기품은 침착하고 맑았으며 ~ 마치 듣지 못한 듯이, 보지 못한 듯이 한 것이 곧 화협의 성품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어찌 못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 몇몇 문구를 나란히 하여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한다...”

한 줄 기록하는 데 눈물 열 줄기가 흘러내린다는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제 마지막은 기력이 쇠한 모습이겠지요. 청동거울, 떡, 빗, 청화백자합 등, 부장품 가운데 생전 아끼던 화장化粧과 관련된 물건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훗날 곱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자는 남은 이들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본래 화장은 개화기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 고유어로는 장식粧飾 또는 단장端粧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피부손질과 아름다움 가꾸기, 옷치장 따위를 아우르는 것으로, 주로 화려하면 장식, 수수하면 단장이라 했습니다.

피부손질 위주의 담박한 멋내기는 담장淡粧, 색채를 곁들여 치장한 경우는 농장濃粧, 짙은 화장으로 요염한 꾸밈일 때에는 염장艶粧이라 합니다. 또한 의식을 위한 짙은 화장, 예를 들면 혼례를 치르는 신부의 경우는 응장凝粧, 얼굴 중심의 치장이 아닌 옷치장과 몸치장을 곁들이면 성장盛裝이라 하였지요.

조선시대에 화장과 연관된 말들이 이리 세분화된 것이 뜻밖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얼핏 외모에 대한



청자 칠보무늬 팔각호, 국립고궁박물관

관심의 방증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양반 남성의 글을 빌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의관이 바른지 확인하며 태도를 존엄하게 하고(이덕무(1741~1793) 『사소절士小節』), 새벽에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정온(1569~1641) 『동계집桐溪集』). 유교적 도덕관념에 따라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치중했던 조선시대 화장의 의미를 전합니다.

화장은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화장품이라는 말은 화장이라는 말과 함께 유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분脂粉(연지와 백분) 또는 분대粉黛(백분과 눈썹먹)가 주로 쓰였고, 화장품과 화장도구 일체는 장렴粧匱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시기, 창백해 보이게 얼굴 전체에 분을 두껍게 발라 병폐적인 느낌이 강한 청대의 화장이나, 이를 검게 물들이는 치흑齒黑이 일반적이었던 에도시대의 화장과는 너무나 달랐던 우리의 화장문화, 실제 사용했던 용기와 화장품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을 한 후 지금의 로션과 같은 미안수美顔水, 크림에 해당하는 면약面藥이나 화장유를 발랐습니다. 미안수는 수세미, 오이, 박 등의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즙이



청화백자 모란덩쿨무늬 호, 국립고궁박물관



색회 등나무무늬 합, 국립고궁박물관

나 수분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청화백자 모란덩쿨무늬 호>에 넣었습니다. 면약은 꿀에 자연재료를 섞은 것으로 좁쌀물의 옷물, 복숭아꽃, 동아씨 등도 함께 썼습니다. 지금의 팩처럼 꿀 찌꺼기인 밀납을 발랐다가 일정시간 후에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한 후 분을 발랐지요.



분채백자 풀꽃무늬 잔, 국립고궁박물관

남녀불문하고 희고 옥 같은 피부를 선호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흰 얼굴을 위해 조선시대에는 미분米粉과 연분鉛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미분은 쌀과 서속黍粟(기장과 조) 가루를 배합한 것으로 수저나 종지 그릇



〈미인도〉 부분,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필자미상, 〈미인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채용신, 〈운낭자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으로 조금씩 떠서 물이나 기름에 개어 썼지요, 연분은 피부에 잘 붙지 않는 미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은 사용금지인 납을 넣은 것입니다. 윤기가 나며 미세해서 분첩으로 두드려 발라도 잘 밀착되지만 계속 사용하면 땀구멍이 넓어지고 얼굴색이 검어지곤 했답니다.

양반가 부녀자는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복숭아색 분을 사용하여 흰 분을 사용하는 궁녀나 기생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백분과 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를 섞거나 진주를 부드럽게 간 초미세분말도 사용했습니다. 진주분의 은은한 반짝임은 몽환적일 만큼 아름답지요. 〈색회 등나무무늬 합〉에 담긴 백색 분은 쌀가루, 연백, 활석 등입니다.

일찍부터 연지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분채백자 풀꽃무늬 잔〉에는 주사가 들어 있는 적색 분을 담았습니다. 홍화에서 추출한 가루를 환약형태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살구씨, 복숭아씨, 유채꽃을 압착해 만든 기름에 개어 솔로 그리거나 등근 연지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종대왕과 효의왕후의 기일에 연지는 바르지 않고 분만 바른다는 기록은 색조화장은 하지 않더라도 분화장은 빠지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순종비 윤희후는 ‘한 듯 안 한 듯 분만 살짝 바르느’ 화장을 했답니다. 개인의 취향도 있겠지만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선호하여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화장한 모습을 ‘야용冶容’이라며 경멸하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화장품용기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입니다. 중국, 일본에서 건너온 수입품이 아닌 유일한 국내 제작품이라는 점보다는 안에 담긴 머리, 가슴, 배가 분리된 항개 미 수천 마리 때문이었지요. 개미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연지벌레와 함께 으깨어 립스

틱으로 썼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개미를 산성이 강한 식초에 담근 것으로 보이는데 피부병을 진정시켰을 리라 짐작한다지요. 쓰임을 밝히고 싶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미용법에는 머리카락을 뽑아 이마 선을 가지런히 하기도 있습니다. 드물게 남아 있는 여인들의 초상을 살펴보면 시대와 신분의 구별 없이 이마 모양이 거의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수아미鬚首蛾眉, 아름다운 용모를 일컫는 말로 이상적인 이마와 눈썹의 모양을 알려줍니다. 넓고 네모반듯한 이마에 초승달 같은 눈썹을 뜻하지요.

눈썹은 관솔, 달개비꽃잎, 목화꽃을 태운 재로 만든 먹 기름에 개어 그렸습니다. 미목眉墨으로 검은색, 짙은 밤색, 검푸른 색까지 다양한 색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늘고 길게, 때로는 두텁게 눈썹을 그리고 지웠던 시절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흰 분과 검은 미목, 붉은 연지... 양증맞은 용기에 담긴 색색의 화장품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의 미인관을 떠올립니다. 피부, 이, 손은 희어야 한다는 삼백三白, 눈동자, 머리카락, 그리고 속눈썹은 검어야 한다는 삼흑三黑, 입술, 두 뺨, 손톱은 붉어야 한다는 삼홍三紅 등의 여러 조건을 갖춰야 미인이라 했습니다. 미인상은 여성을 구속하는 무언의 족쇄와 다름없다 했는데 이제는 일편 무병의 증표였음에 생각이 미칩니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등지고 보니 건강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싶습니다. 미인박명 이던가요? 미인장수는 아닐런지요. 🐜

문정원 회원



화장하는 여인들과 화장도구 파는 사람들, 〈태평성시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그 남자들이 꾸미는 법

몇 년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정처 없이 흘러 다니다가 매우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편두통, 참아야 하느니라, 조선 멋쟁이의 품생품사”. 서울신문에 실린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민주 연구원의 조선시대 복식에 대한 연재물 중 첫 편이었지요. 조선 멋쟁이의 편두통의 원흉은 바로 ‘망건’이었습니다.

조선의 단정한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열레빗과 참빗, 두 가지 빗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한 올도 빠지지 않게 단정히 정리해서 정수리에 모아 달걀만 한 크기의 상투를 틀었어요. 거기에 상투용 비녀인 동곳을 찔러 마무리를 하고 머리와 이마의 경계선에 망건을 둘러 흘러내리는 머리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지요. 그러니까 망건의 용도는 오늘날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리지 않게 쓰는 머리띠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멋쟁이들은 그 망건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답니다. 글썄 잘만 당겨 쓰면 약간의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이른바 뽀뽀 성형 효과가 나서 의욕적이고 젊어 보일 수가 있었어요!

저자는 그 예를 강이오의 초상화에서 보여주었어요. 망건에 눌린 그의 이맛살을 보니 내 머리도 같이 지끈거리는 것 같았어요. 소싯적에 새로 산 머리띠 때문인 줄도 모르고 두통에 시달리다가 무심코 머리띠를 벗었을 때 순식간에 해방됐던 기억이 났어요. 저분도 초상화 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꼭 조였던 망건 끈을 좀 헐겁게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살쩍밀이로 귀 주변에 빠진 머리카락을 망건 안으로 밀어 넣는 척하면서 망건을 들어 올려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보려 했을까요?



강이오 초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윤집 초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이성원 초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영친왕 망건, 국립고궁박물관

혹시 저분이 특히 유난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선시대 초상화 도록을 빌려서 다른 분들의 망건 착용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아! 외모와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 아플 것 같은 남자 이마들이 계속 나왔어요. 인생 샷을 남기는 자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게요. 평소엔 멋쟁이가 아니었던 라도 이럴 땐 한껏 멋져 보여야만 하니까. 어떤 기록에는 망건을 벗었더니 피가 흥건할 정도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시간과 돈, 안목과 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통은 흔쾌히 감수하는 인내심 정도는 갖추어야 멋쟁이가 될 수 있나 봐요.

상투를 틀고 망건을 썼으니, 이제 본격적인 멋 내기를 시작해야 해요. 비록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높으신 분들 위주이긴 하지만 조선 남자들의 생생한 모습이 초상화로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투를 아무리 예쁘게 틀었더라도 맨상투를 내놓고 다니는 것은 그분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어요.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초상화를 보면 제갈량이 즐겨 썼던 관이라 그의 호를 붙여 와룡관이라고 부르는 모자 속에 탕건을 먼저 쓴 것이 보여요. 망건 위쪽에 노란색과 갈색으로 된 반달형 풍잠(風簪)도 보이는데, 아마도 거북이 등 겹질인 대모로 만든 것 같아요. 망건을 착용하고 이마의 중심에 풍잠을 두고 갓을 쓰면 바람이 불어도 갓이 잘 벗겨지지 않는대요. 하지만 단지 바람 때문에만 착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와룡관은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쓰는 모자이고 풍잠도 딱히 뭔가를 고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말총 사이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고가의 재료로 만든 풍잠은 착용자의 격을 대변해 줬답니다. 그래서 ‘땃새를 굶어도 풍잠 멋으로 굶는다.’는 말이 있는데, 체면을 차리느라 어려움을 무릅쓰는다는 뜻이래요.



이하응 초상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이광사 초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윤증 초상 부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두루마기, 전복, 세조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상투관을 쓰고 동곳을 꽃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광사 초상화에서 그가 쓴 방건 안쪽을 들여다보세요. 방건도 집에 있을 때 쓰는 모자랍니다. 이분은 망건은 썼지만 풍잠은 붙이지 않았어요. 비슷한 복장에 상투관과 동곳까지 꽃았지만 망건을 하지 않은 다른 분의 초상도 있습니다. 윤중 초상화가 그것인데요, 이분이 망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대머리이기 때문이었어요. 꼭 조이는 망건으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느껴지시나요? 게다가 이 시대에는 탈모가 전혀 흠이 아니고 오히려 출세하는 상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게다가 다양한 모자의 나라인 조선에서 사대부의 적은 머리술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편히 있을 때조차 무언가를 쓰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갓끈을 고를 차례네요. 천으로 된 갓끈(포백영布帛纓)을 턱 밑에 묶으면 벗겨질 일은 없을 텐데, 멋을 내려면 추가로 예쁜 구슬 갓끈(주영珠纓)을 치렁치렁 늘어뜨려야 하거든요. 『성호사설』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는 천으로 된 끈이 여름에 땀에 젖어 잘 끊어지는 것을 대비

하여 연자蓮子나 대나무같이 소박한 재료를 엮어 쓰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좋은 패션 아이템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호박, 대모, 자수정, 금, 은 등 줄에 꿰 수 있는 모든 예쁘고 값비싼 소재가 총출동했어요.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임금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부피가 작고 환금성도 좋아서 뇌물로 애용되는 부작용마저 생겼답니다.

조선 멋쟁이 남자의 꾸미기는 이쯤에서 쉽게 끝나지 않아요. 갓 꼭대기에 옥으로 된 해오라기 모양 조각인 옥로를 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복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허리춤에 주머니를 따로 차야 했는데, 그것도 패션의 일부였어요. 바람이 불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옷깃이 펄럭일 때마다 보이는 예쁜 비단 주머니를 슬쩍슬쩍 자랑할 거예요. 호패도 그냥 차지 않고 술을 달았어요. 현대 남자들이 벨트로 멋을 내듯이 이 시대에도 도포나 전복 허리에는 세조대를, 융복인 철릭에는 더 두꺼운 광다회를 댔어요. 그리고 남녀 공통 장신구 겸 실용기인 장도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손에는 계절 불문 부채를 들고 손잡이에는 멋들어진 선추를 달아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현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장신구인 시계에 대응되는 조선시대 장신구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장도를 꼽지만 제 생각엔 부채와 선추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값비싼 나침반 선추를 달고 다니는 조선 남자는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찬 요즘 남자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조선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다가 결국엔 잊힌 장신구 애기를 하고 싶어요. 고대국가 때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내려온



옥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은파란 귀걸이,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갓끈,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귀걸이 하는 풍습이 조선 중기까지도 살아 있었대요. 왕족을 비롯한 성리학을 신봉하는 지배층 남자들마저도 그 풍습을 쉽게 버리지 못했고요. 그 귀걸이 크기가 작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치렁치렁 술까지 늘어뜨렸다지 뭐예요. 게다가 임진왜란 때 조선인과 일본인 수급을 쉽게 구분하는 특징이 바로 귀 뚫은 자국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러다가 임란 이후 교조화된 성리학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더 이상 귀를 뚫지 못하게 되어 귀에 거는 형태의 귀걸이로 변했다가 결국엔 대부분 사라졌다고 해요. 몇 천 년 된 풍습을 버려야 하다니,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쉬움은 어떤 패션으로 대신 표출됐을까요?

청렴함과 검소함을 극도로 강조하는 이념과 사상이 온 나라를 덮고 있을 때도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자신의 멋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통제는 해도 완전히 누를 수는 없었어요. 연애가 있는 나름 점잖 빠는 분들이 이 정도니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리고 평민들은 상류층의 멋 내기를 형편껏 또는 가량이 찢어져 가며 따라 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부터 남자들이 몸치장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입는 서양 복식의 영향이겠지요. 수많은 회화에 나오는 화려한 옷을 입은 유럽 남자들은 언제부터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의상을 전공한 친구가 주저 없이 답해줬어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대전. 여자들은 꾸미지 않았다고 타박당하고 남자들은 꾸몄다고 타박당하는 시대는 역사를 통틀어 보면 오히려 별난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녀불문 어떻게든 꾸몄어요. 점잖기만 한 줄 알았던 선비님네들도 알고 보니 패션 피플이었잖아요. 🐼

서유미 회원



선추, 국립중앙박물관



상아로 만든 호패, 국립중앙박물관



# 관음보살님, 우리 얘기도 들어주세요!



도갑사 <관세음보살32응신도>, 일본 知恩院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한 번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힘든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된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곤 한다.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짬! 하고 나타나 나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을 모두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져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즘은, 누군가가 코로나19를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랐던 마음은 옛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았던 것일까. 현세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그림 한 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 교토 지온인 知恩院에 소장되어 있는 도갑사 <관세음보살32응신도>(이하 <관음응신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불화는 조선 명종 5년(1550년)에 인종의 비妃인 인성왕후가 죽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원 이자실 李自實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월출산 도갑사에 봉안했던 불화이다. 불화이면서도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 독특한 화면구성이다. 이 불화에서는 그림 한가운데 그려진 관음

보살 아래로 관음보살의 제난구제(諸難救濟, 사람들이 겪는 현세의 무수히 많은 재난과 고통을 구제함) 장면 21가지를 한 폭의 그림 안에 모두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화면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은 이 <관음응신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의 제난구제 장면은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하 「보문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문품」에 따르면, “백천만억백千萬億 중생이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一心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聲音)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라고 하였다. 즉, 관음보살의 이름만 불러도 현실 세계의 온갖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극락세계로 맞이해주는 아미타불, 지옥세계에서 구제해주는 지장보살, 먼 미래에 내려올 미륵불과 달리 관음보살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내세來世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 관음보살의 제난구제 장면을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관음응신도>의 제난구제 장면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옛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작품들에 표현된 제난구제 장면과 ‘비슷한 그림 찾기’를 해보는 것이다. 제난구제 장면의 가장 이른 예는 아잔타(Ajanta)·엘로라(Ellora) 석굴 등 6~8세기 서인도 지역 석굴사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중국 수·당대에 조성된 둔황막고굴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음응신도>의 경우 각 장면마다 그 장면에 해당하는 경전의 글귀들이 옆에 쓰여 있어 장면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재미있는 장면 세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원적난 怨賊難으로,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 들고 해치려 해도 따뜻한 마음이 일며”라는 글귀를 가진 장면이다. 그림을 보면 무릎 꿇고 있는 한 인물 앞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도적이 있는데, 이때 도적이 들고 있는 칼은 산산조각 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도적으로부터 무사하길 간절히 빌자 관음보살의 힘



원적난



보문품변상도의 세부 원적난, 프랑스 기메박물관



선덕7년(1432)명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변상도>의 세부 뇌전박우난,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으로 도적의 칼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중국 오대五대에 변화燻畫로 제작된 둔황 보문품 변상도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둔황 변화에서는 도적의 칼이 산산조각 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뇌전박우난雷電雹雨難으로, “구름과 천둥이 치고 번개와 큰비가 내려도 일시에 스스로 사라진다.”라는 글귀를 가진 장면이다. 그림에는 천둥소리를 내는 뇌신雷神과 번개를 일으키는 전신電神,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風神과 용으로 표현된 우신雨神이 등장하고 그 아래에는 우산을 접고 걸어가는 한 인물이 나타난다.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 상황에서도 관음보살의 힘으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다. 명 선덕7년(1432)명



뇌전박우난

<관세음보살보문품변상도>의 뇌전박우난 장면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우산을 펼쳐 힘겹게 비바람을 맞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관음응신도>와 대조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악수난惡獸難으로 “나쁜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라는 글귀를 가진 장면이다. 그림에는 한 인물이 고개를 뒤로 돌려 도망가는 호랑이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와 사자가 악수惡獸로 등장하였고, 둔황 보문품변상도에서는 낙타가 악수로 등장한 예도 보인다. 사나운 짐승으로 고통받았다는 점은 같지만, 가장 두려워한 짐승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관음응신도>에서는 악수인 호랑이가 그림 속 인물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 역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난구제 장면 속 인물을 고통받는 모습으로 표현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관음응신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관음응신도> 속에서 도적의 칼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날씨는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온해졌으며, 호랑이는 쫓겨 빠지게 도망가기 바쁘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설정이었을까. 더욱이 <관음응신도>는 일반 민중이 아닌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된 불화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난구제 장면이 전례 없이, 그것도 왕실 발원 불화에서 전면 부각되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 그림의 발원자인 인성왕후(1514~1577)는 죽은 인종의 정도왕생을 위해 이 그림을 발원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원의 목적과 그림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 그림의 제작 목적에 다른 의미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세자빈 시절부터 그녀에게 닥쳐온 슬한 위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먼저 떠난 남편 인종 대신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곳이 관음보살뿐이었던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이 그림을 발원한 인성왕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원자인 인성왕후가 관음보살



악수난

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염원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같다.

<관음응신도>에 그려진 내용과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가다 보니 한 가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것을 <관음응신도>처럼 그림으로 남긴다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을 표현한다면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좋을까? 아니면 주사를 맞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 글을 읽고 머릿속에 온갖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벗어나고 싶은 현실적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도 고난에서 벗어난 그림 속 사람들처럼 크게 한마디 외쳐보고 싶다.

“관음보살님, 우리 애기도 들어주세요!” 🙏

김진 국립중앙박물관회



보문품변상도의 세부 악수난, 영국박물관



## 편안한 동행 - 옛 다리

영월 판운리 쇠다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화석이 된 말이 있다. 응석을 부리는 아이에게 예전 어른들이 툇 던진 언어유희였다. 이 무시무시한 말에 난감했던 아이의 가슴앓이와 친엄마 찾기 행보는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곤 했다. 어둡고 무서운 다리가 아름다운 추억처럼 살아난 건 소설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의 징검다리 덕분이었다. 징검다리 위에선 시선을 내리는 의도치 않은 겸손함과 더불어 마주 오는 상대를 배려하게 된다. 노뚝돌 하나하나 정성스레 밟다 보면 맑은 물에 모두 씻겨버린 마음이 보인다.

수려한 경관을 만드는 홍예교의 유려한 곡선은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했다. 무지개다리는 기하학의 균형과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교로 인식된 이 다리는 주로 궁궐이나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네 정서를 담은 소박한 마을의 다리를 기억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오래전 아이들과 특별한 돌다리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오른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는 여행자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은 요즘, 잊혀진 길을 찾아보는 것 또한 솔깃하지 않을까.....



진천 농다리

수심이 얇아 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십 미터가 넘는 강과 하천을 어떻게 건넌을까? 영월 판운리 그림 같은 쇠다리를 만나면 무엇보다 옛 사람의 지혜가 참 아름답다. 쇠다리는 뿔나무로 사용하는 섶을 엮어 만들어 놓은 다리이다. 강물의 수심이 얇아지는 10월에 서로 왕래해야 하는 양쪽 마을 공동체가 모인다. 하천 양 끝에 하중을 버틸 수 있는 Y자 모양의 다릿발을 세우고 그 위에 다릿발을 고정시키는 두꺼운 멩에목을 얹은 후 움직이지 않게 나무 췌기를 박아 고정한다. 점차 강 가운데를 향해 다릿발을 세워 교각을 2미터 간격으로 만든다. 교각과 멩에목 위에 상판 역할을 하는 끈은 나무들을 가로로 길게 걸어 단단히 묶어준다. 세로는 교각 넓이의 짧은 나무를 엇갈려 묶고 그 위에 솔가지나 잣나무 가지 같은 섶을 촘촘히 엮는다. 엮은 섶 위에 흙을 쌓고 단단히 밟으면 쇠다리가 완성되는데, 마을 최고 연장자들을 앞세우고 다리를 건너며 인사를 나눈다.

물살을 건디기 힘든 축조 방식이니 장마나 홍수가 나면 다리가 끊긴다는 것을 놓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한 나무로 함께 만든 쇠다리는 생명이 다하면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고, 다리 놓기는 해마다 마을 화합의 축제로 대물림했다. 굽이굽이 흐르는 평창강과 사방이 높은 산으로 가로막힌 이 마을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쇠다리, 18세기 김득신은 <귀시도>에 장을 보고 쇠다리를 건너 돌아가는 신명 난 사람들의 모습을 푸근하게 그려냈다. 현대식 콘크리트 다리의 편리함에 자취를 감췄던 쇠다리는 그리움의 기억을 지키려는 마을의 노력 덕분에 ‘모두의 다리’로 돌아왔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쇠다리를 밟으니 섶과 만난 꿀렁거리는 흙의 감촉이 쇠다리가 흙다리임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하늘을 향해 세워진 가장자리 섶이 걷는 내내 편안한 동행을 허락한다. 나무와 흙의 조화로움에 넉넉하고 가벼운 바람이 산천을 품 안에 안긴다.





진천 농다리 세부



함평 고막천 석교



함평 고막천 석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또 하나의 다리가 있다. 천 년을 버텨낸 돌무더기 다리,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를 흐르는 비교적 수심이 깊은 세금천에 자리한 농다리. 자연석 돌무더기 교각과 널찍한 상판 돌이 교묘하게 잘 짜인, 징검다리를 품은 특별한 널다리이다. 강바닥에 큰 돌로 기초를 쌓고, 크고 작은 잡석을 서로 잡아당기도록 들여쌓아 28칸의 교각을 만들었다. 0.8미터 정도 간격의 교각과 교각 사이는 장대석을 얹어 다리를 완성했다. 교각 양 끝을 유선형으로 오므려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게 하고, 물의 일부가 투과되는 메쌓기 구조로 세찬 물살에 잠겨도 교각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잠수교 형식이 슬기롭다.

이곳이 상산 임 씨의 세거지인 까닭인지 고려 무신 임연이 친정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내를 건너지 못해 애를 태우는 젊은 부인의 딱한 사연에 용마를 타고 돌을 날라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나라의 변고 때마다 울었다는 농다리는 생겨진천生居鎭川, 살기 좋은 진천을 대표하는 신비로운 풍경이다.

튀어나온 교각의 양 끝이 지네발처럼 보이는 건지 지네가 몸을 슬쩍 통기며 물을 건너는 형상이라는 농다리를 새의 눈으로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선다. 지네 등에 올라탄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행보에 금방이라도 굽은 등을 세울 것만 같다. 2000년대 초 조용하기만 했던 농다리가 적극적인 관리 홍보 덕분인지 찾는 이가 많아진 것 같다. 28칸 수문 중 어느 틈엔가 4칸이 소실된 것을 2008년에 복원하였고, 농다리와 나란한 곳에 징검다리를 놓으니, 자연과 어우러진 조상들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 같다.

중후하고 고고해 보이는 보물 돌다리도 있다. 나주시 문평면과 함평군 학교면의 경계를 흐르는 고막

천에 놓인 다리 위에 서면 나도 모르게 발을 구르게 된다. 꿈쩍도 하지 않는 돌다리의 위용이 전해져 온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과 어울리는 만사 불여튼튼이다. 고려 원종 15년에 법천사 고막대사가 놓았다는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2000년 발굴 시 탄소 측정으로 확인된 연대가 1450년 전후로 판명되었다.

하천 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아 기반을 안정시키는 기초 작업을 한 위에 놓은 지대석, 그 주변에 잘 다듬은 돌을 깔아 급류에 바닥이 파이지 않도록 다리 하부 구조에 공력을 들였다고 한다. 교각은 길고 짧은 돌을 열기설기 포개어 쌓기도 하고, 돌기둥 하나로 서 있기도 하여 제각각이다. 맨 위에 받침돌을 놓고 명에돌을 지지하니, 목조건축의 공포를 구성하는 주두의 결구 방식과 그대로 닮았다. 명에돌은 상판 옆으로 길게 튀어나와 다리 날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귀틀돌 가장자리에서 잘려 나간 것도 있다. 투박함이 갖는 운치에 교각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상판은 교각과는 다르게 고른 우물마루로 짜여 있고, 다리가 시작되는 자연석 널돌은 후대 보수 과정에서 바뀐 것이라는데 교각과 상판과 널돌의 서로 다른 조화로움이 돋보인다. 기다란 고막천을 널돌 다리로 건넌다면 좋았으련만, 돌다리 중간에 직사각형의 심터 같은 인공 섬이 있고 이어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다. 물길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을 고막천의 예전 모습이 궁금해진다.

이 다리를 건너 나주와 영산포에 떡을 팔러 나가는 아낙네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떡다리’, ‘떡다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우리네 삶에 큰 자리를 차지했던 다리가 보물이 된 지금은 휴식을 취하는 듯 인적이 없다.

세시 풍속에 정월 대보름 밤, 다리를 밟으며 걷는 답교 놀이가 있다. 한 번을 밟고 돌아오면 1년간 다리(脚)가 건강하고 무탈하며, 두 번이면 무병장수, 세 번이면 승천해서 극락을 간다는 믿음이 있었다.

신앙을 바탕으로 둔 이 놀이를 통해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

없이 먹고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다. 다리를 통해 희망과 바람을 풀어내는 조상들의 숨결이 보인다.

요즘 대세라는 스토리텔링이 녹아 있는 옛 다리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소였고, 속세를 고통 없는 피안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이상향을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역사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티며 사람들의 삶과 혼을 담은 옛 다리를 이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아스라이 잊힐지도 모른다. 섣다리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마음처럼 소외되고 잊혀진 옛 다리가 ‘모두의 다리’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

정은정 회원



임득명, <가교보월>, 삼성출판박물관



초가잔빌 지구라트

# 낮설고 매력적인 나라, 이란

‘이란’ 상당히 낯설고 조금은 긴장되는 이름이다. 오히려 고대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훨씬 친근하게 여겨질 만큼. 2017년 1월 말쯤 우연히 지인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서 ‘이란 여행’이란 글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란 갔다 오면 미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였다.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공항에서 만나 들은 첫 번째 주의사항은 ‘주류 반입 금지’였다. 집에서 술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당할 수도 있단다. 방콕에서 환승하고 12시간 30분이 나 걸려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들이 여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모두 스카프를 써야 한다고 안내해 준다. 이때부터 열흘간 호텔 방 안을 빼고는 항상 스카프를 쓰고 있어야 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안내데스크 벽면에 호메니이와 하메네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

다음날 아침 팔레비 왕조의 여름궁전이었던 사드 아바드 궁전을 방문했다. 중동에 있는 ‘열사의 나라’로 생각했던 테헤란의 아침 기온은 영하였고 가까이 보이는 알부르즈 산맥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었다. 18개의 건물이 있는 넓은 공원 같은 이곳에는 휴일인 금요일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프랑스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실내와 가구, 집기들을 둘러보고 나오다 만난 어린 여자아이의 수줍은 웃음이 이 나라에 대한 긴장을 조금은 풀어주었다.

저녁 늦게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아와즈로 떠났는데, 무려 세 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을 뿐 아니라 승객들을 태워 놓고도 바닥에서 뭔가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 불안했다. 결국 이란 남서부 유전지대에 있는 아와즈에 도착한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다음날 아침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수도이기도 했던 수사 유적을 찾아갔다. 다리우스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건설한 ‘왕의 길’은 수사에서 터키의 사르디스까지 이어진 약 2475킬로미터를 전차로 1주일 만에 갈 정도로 빠른 길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640년 무렵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수사의 유적 발굴은 19세기 프랑스가 주도하였는데, 함무라비 법전과 각종 채색 부조 등 중요한 유물은 모두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발굴의 흔적만 남은 허허벌판에는 기둥 조각 몇 개와 이름 모를 들꽃들, 바위틈에서 나타난 여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수사 시내의 시장 한가운데 있는 ‘다니엘 선지자의 영묘’를 보고 초가잔빌 지구라트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하마트’라는 조그만 마을의 가정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바닥에 화려한 천을 깔고 차려놓은 채소와 밥, 난, 치킨, 소스, 요구르트, 대추야자를 먹고 주인집 귀여운 딸들이 대접하는 차도 마셨다. 초가잔빌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지구라트이다. 기원전 1250년경 엘람 왕국의 운



사드 아바드 궁전에서 만난 모녀

타시 나피리샤 왕이 인슈시나크 신을 위해 세운 신전으로 기단부는 가로와 세로가 105미터나 된다. 원래는 60미터쯤 되는 5층 건물로 추정되지만 윗부분은 무너져 지금은 25미터 정도만 남아 있다. 벽돌로 쌓았고 외부는 구운 벽돌로 마감했다. 남쪽 문을 통해 1층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아치가 있고 벽돌 곳곳에 췌기문자도 남아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밖으로 나와 흙먼지가 폴폴 날리고 우리 일행 외에는 아무도 없는 지구라트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3300년전 신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원을 생각해 본다.



나스르 알 몰크 마스지드



나란제스탄 궁전



하페즈 영묘의 천장

다음 도시는 시라즈였다. ‘시와 문학의 도시’ 또는 ‘포도주와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곳이다. 처음 방문한 나시르 알 몰크 마스지드(모스크의 아랍어)는 ‘분홍 모스크’ 또는 ‘빛의 모스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분홍빛 타일도 아름다웠지만 겨울 예배공간의 스테인드글라스가 펼쳐내는 빛의 향연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바로 길 건너의 나란제스탄 궁전은 전형적인 페르시아식 정원과 화려한 타일 장식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수학여행 온 16살 여학생들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다가 ‘이민호’ ‘EXO’를 아느냐고 물어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트린다. 한국어를 조금 아는 학생도 있었다. 밝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덕분에 맘껏 웃었다.

‘시와 문학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페르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사디와 하페즈 두 사람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 활동하다가 여기에 묻혔다. 사디의 영묘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만났고 밤에 찾아간 하페즈의 영묘에서는 낮에 만났던 여학생들을 다시 만났을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을 어루만지고 기둥에 기대 앉아 시집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 죽은 지 700년쯤 된 시인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

다음날 아침 시라즈의 관문인 쿠란 게이트를 보고 페르세폴리스로 갔다. 기원전 518년 다리우스 1세가 수사에 이은 제2의 수도로 짓기 시작해 크세르크세스 1세를 거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때 12만 5천 평방미터 크기로 완성한 궁전이다. 지구라트 모양 난간석이 있는 111개의 계단을 올라서면 ‘만국의 문’이 나온다. 이 문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라마수’는 사람의 얼굴에 황소의 몸, 그리고 날개가 있다. 문 안쪽에는 대기실로 여겨지는 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폭 9.7미터, 길이 92미터의 대로가 펼쳐진다. 이 길은 100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백주궁전’으로 이어지는데 궁전 문의 벽에는 페르시아 인과 메디아 인으로 이루어진 100명의 불사친위대 병사들 조각이 있다.

연회장으로 썼다는 백주궁전을 지나면 보물창고가 보이고, 드디어 가장 크고 중요한 건물이었던 알현실 ‘아파나다’가 나타난다. 2.6 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가로 세로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로 20미터짜리 기둥이 72개나 있었으나

지금은 14개만 남아 있다. 계단 벽면은 생생한 부조로 가득 차 있는데, 28개 나라에서 선물을 들고 온 ‘조공행렬도’가 가장 흥미로웠다. 특히 엘람 사신이 끌고 온 어미사자가 뒤따라오는 아기사자를 돌아보며 울부짖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사자가 황소를 물어뜯는 신년 축하 그림도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궁궐을 내려다보는 산기슭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와 다리우스 3세의 무덤이 있다. 무덤 앞에서 내려다보는 궁전은 폐사지 같은 쓸쓸함을 준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산등성이 같은 높은 곳에 시신을 두고, 자연스레 새들이 뜯어먹게 한 다음 뼈만 남으면 단지 등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무덤에 모셨는데, 왕들의 무덤도 이렇게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다.

조로아스터교의 도시 야즈드에는 1550년 동안 계속 타올랐다는 ‘승리의 불’을 간직한 아타시 카데 사원이 있다. 사원 옆의 조그만 박물관에서 본 달력이 아주 재미있었다. 계속 헛갈렸던 페르시아 숫자를 깨칠 수 있었고, 새해의 시작이 춘분이라는 것도 납득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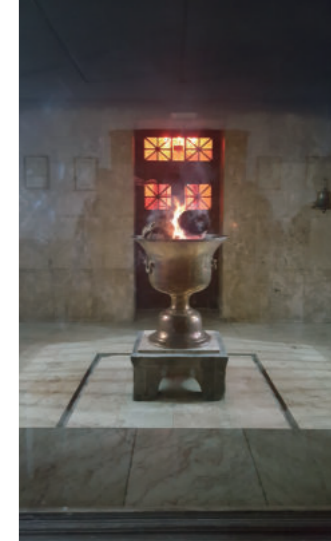
야즈드에는 1978년까지 운영되었던 ‘침묵의 탑’이라는 조장 터도 남아 있다.

드디어 이스파한에 도착했다. 이맘광장의 셰이크 로트폴라 마스지드와 이맘 마스지드

의 타일 장식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였다. 섬세함의 극치라고나 할까? 길이 510미터, 폭 16미터의 광장 안쪽 좁은 길을 따라 늘어선 카페, 식당, 온갖 상점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카페라테도 맛있었다. 관광객도 많아 유럽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1500년이 넘는 이란 전통마을 아비아네를 거쳐 테헤란으로 돌아왔다. 바자르에서 한국말을 잘 하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예전에 ‘대림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낯설었던 나라가 밝고 친절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

길문숙 회원



조로아스터교 승리의 불



페르세폴리스 만국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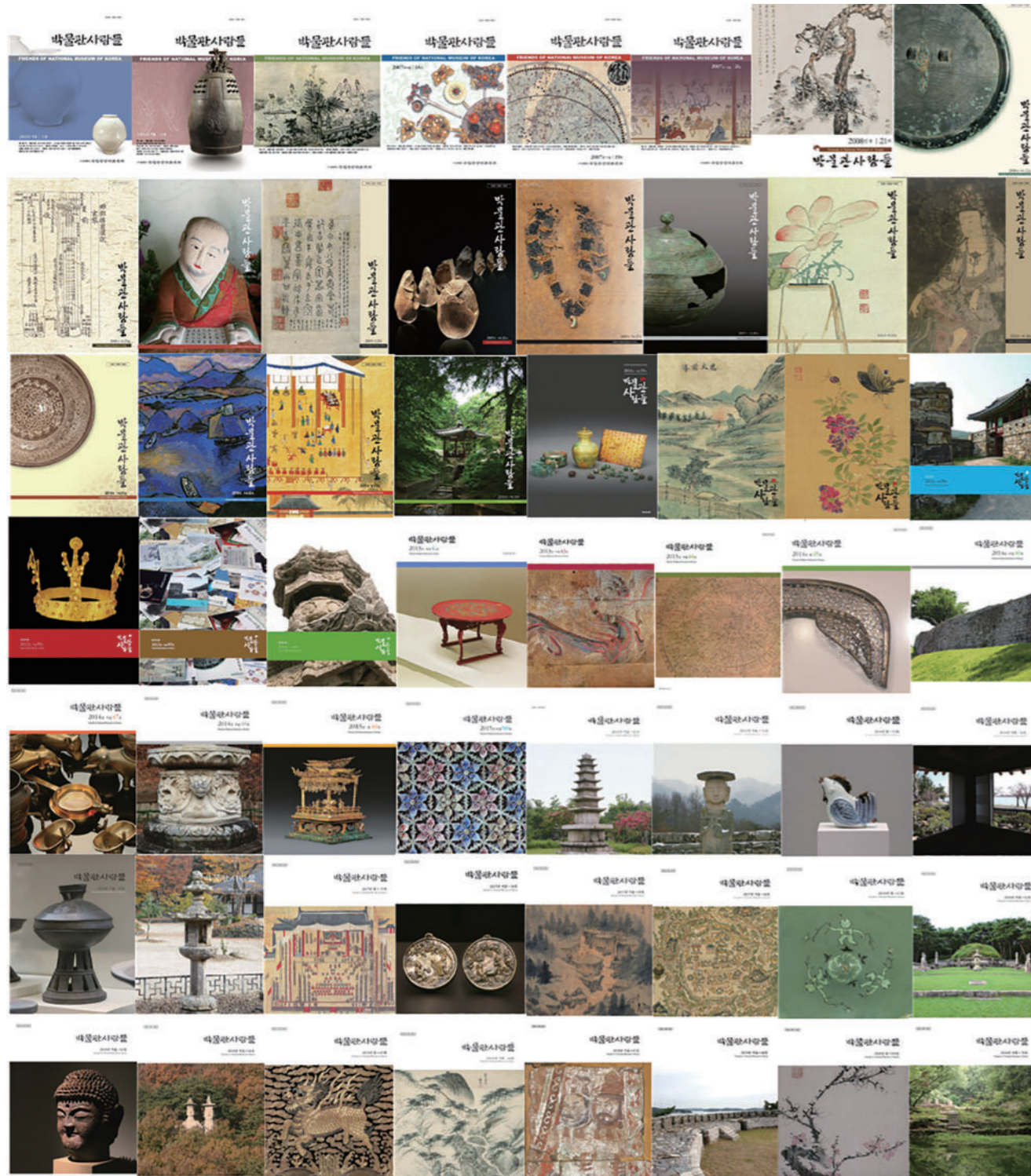
페르세폴리스 사자 부조



## 물의 노래

보길도에 있는 곡수당 앞에 서면  
시냇물이 작곡을 하는 소리 들린다  
도레미 도레미 다시 도레미  
높은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저음의 소리로 졸졸졸 세상과 마주한다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들도 저음 속으로 지워져 내리는  
이 물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명예와 이익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자 했던  
조선에서 온 윤선도 학자의 글 읽는 소리가  
윙조리듯 졸졸졸 들려온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절뚝거리며 흘러와서  
도에게 물어보고 레에게 물어보고 미에게 물어보고  
도레미 도레미 졸졸졸 낮은 음으로 승화 하는 곳  
물은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흘러야 끝내 바다에 이른다는 것을  
몸을 던져 노래하는 곳  
여기 곡수당 물의 노래를 들으며 깨닫는다 🌊

강현자 회원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박물관사람들』 원고 모집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8년간 『박물관사람들』을 기획 및 제작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및 기부회원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회지는 매 회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편집회원, 후원인, 학예사, 대학교수 등 많은 분들의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2021년에는 『박물관사람들』 원고 공모전을 통해 더욱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선정된 원고는 특집기사로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공모부문

- 국내 국공립박물관 유물 · 전시 · 답사 관련 주제
- 국내외 답사기(직접 촬영한 사진 6장 필수)

### ❖ 공모일정

- 접수 : 2021년 9월 17일까지
- 발표 : 2021년 10월 첫째 주

### ❖ 지원자격

-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 · 일반 · 특별 · 기부 회원

### ❖ 접수방법

- 분량 : A4 10포인트 2장 분량(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 형식 : 수기(手記) 또는 한글파일 형식
- 제출 : gomuseum@hanmail.net 이메일 또는 사무국 방문 제출

- 응모해 주신 원고는 심사를 위해 박물관회 직원 및 편집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제출 원고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만약 표절 등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 1 특별 및 테마전시

기간	구분	명칭
2021.04.29(목) ~ 2021.08.15(일)	특별전	시대의 얼굴, 세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2021.05.18(목) ~ 2021.09.26(일)	특별전	호모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2021.04.28(수) ~ 2021.09.26(일)	테마전	빛을 펼치다-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
2019.12.16(월) ~ 2021.11.07(일)	테마전	이집트실: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020.05.06(수) ~ 2021.07.25(일)	테마전	손뼉 치며 감탄하네: 김홍도의 풍속도첩

## 2 상설전시

기관	구분	주소
2021.01.25(월) 개관	상설전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
2021.01.25(월) 개관	상설전	일본실: 무사 -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2021.02.18(목) 개관	상설전	분청사기 백자실

숨은 전시 ●●●



손잡이 달린 굽다리 잔, 기증문화재실

## 대면하는 일

습관처럼 밖을 보게 돼  
 불현 듯 누군가와 주었으면 좋겠어  
 가야에서 온 굽다리 찻잔에  
 찻물 따뜻하게 데워 놓고  
 손잡이 매만지며  
 마중하게 돼  
 자꾸 기다리게 돼  
 왜 있잖아 그때처럼  
 오개오개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  
 웃는 날 올까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申聖秀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尹在倫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尹在倫
副 會 長	朴殷寬 尹碩敏
常任顧問	申聖秀
當 然 職	閔丙贊
理 事	金錫洙 金賢銓 南秀淨 朴善正 朴宣注 朴禎原 禹燦奎 俞承熹 李玉卿 鄭溶鎮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政旭
監 事	金教台 李教祥
事務局長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b>백호회원</b> 삼성전자	金芝延 金知爰 金賢銓 都炯泰 柳智勳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朴英柱 宋秉峻 朴禎原 宋英淑 禹燦奎 俞相玉 李垓旻 李教祥 李圭植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柱翰 林鍾勳 張善霞 張仁宇 鄭明勳 鄭在鳳 曹榮峻 崔杜準 崔正勳 최철원 韓惠舟 許允烘 曺 憬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킴투스·게임빌 의장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MashupAngels 대표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부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동남유화 회장 (주)이도 대표이사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회원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南兌勳 柳芳熙 朴環鎮 朴漢正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辛炳讚 沈宗玄 梁洪碩 柳昌宗 尹賢慶 李常宰 李廷龍 丁恩美 崔雄善 咸泳俊 洪正道 洪進基	회원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텍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V&S자산운용 이사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대신증권(주)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b>주작회원</b>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b>현무회원</b>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b>천마회원</b>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襄東眩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鄭溶鎮 全裁範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許允秀 洪錫肇 洪政旭	동서식품(주) 회장 MIT Visiting Fellow (주)선앳푸드 사장 창성그룹 부회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금강공업(주) 사장 효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주)BCF리테일 회장 올가나카 회장			
<b>금관회원</b> 姜德壽 庚 圓 權俊一,具在善 金教台 金南延 金承謙 金益煥	전 (주)SI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룡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 은관회원

오리는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주)에을 이사장

#### 청자회원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전무  
LS-Nikko동계련(주) 사업전략부부장/상무  
LIG 회장  
LK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부사장  
한성플랜지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상무

金京姬  
金洛昇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叡洙  
金相潤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珪  
金榮秀  
金寧慈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志泰  
金兌炫  
金澤辰  
金賢剛  
노 석  
潭舒元  
柳重熙  
문윤희  
민병철  
閔俊棋  
박범준  
朴仙卿  
朴宣注  
朴世昌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박주원  
朴俊泳  
朴海春  
朴惠晟  
方正梧  
襄允植  
白晋宇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申碩均  
辛永茂  
愼昌宰  
辛春洙  
楊仁集  
梁沃會  
魚湖善  
吳勝敏  
柳東鉉  
俞承熹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주)에을 명예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지알엔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주) 부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식플란트치과병원 병원장  
오리온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어피티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덴톤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건설 사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시몬느 에프씨 대표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코퍼레이션 부사장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골드만삭스 상무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부사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日榮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濂  
李宇成  
李宇一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林志鮮  
張同鎭  
張盛鎭  
張升準  
洋賢財團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CO)/자동차부부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검토갤러리 관장  
(주)프라고 재정보부장 전무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능 경영총괄 사장  
SGC에너지(주) 부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홍아해운 부사장  
수원지방법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이사회 의장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이사  
매일경제 사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한솔케미칼 부회장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그룹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주)카카오 CFO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한국도로공사

韓碩炫  
韓榮宰  
許正錫  
許辰秀  
許致烘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金根鎬  
洪正國  
洪禎寅  
洪正赫  
洪振碩  
黃仁奎  
黃晁煥  
Joseph Bae  
Mark Tetto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GS리테일 상무  
  
(주)화승알앤에이 대표이사 부회장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고려상사(주) 부회장  
  
BGF 사장  
JTBC 상무  
BGF 전무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주)케이지에프 전무  
KKR Asia Limited 대표  
TKX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 2021. 03.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